



생태전환교육

지구를 지키는 작은 영웅

“버려지는 물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발표자 - 송현유치원 하현정 교사(만 5세)

지구

업사이클링

환경보호



송현유치원



목차

- 01 놀이주제
- 02 주제 선정 이유
- 03 놀이 목표 및 방향
- 04 대상
- 05 유보 통합 시범사업 연계
- 06 놀이 과정





주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영웅

“버려지는 물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주제 선정 이유

우리가 매일 먹는 맛있는 과자 상자, 시원하게 마신 플라스틱 음료수병, 우유팩은
한번 쓰고 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일상속에서 “이건 이제 정말 못쓰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며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냥 분리 수거함에 넣고 끝나는 재활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하면 멋진 “재활용 마법” 이 일어납니다.

쓸모 없이 보이던 우유팩, 플라스틱 병뚜껑 상자 등이 자신의 손을 거쳐
멋진 놀잇감이나 작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과
스스로 해냈다는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처럼
재활용을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사랑하며 자원의 오래 쓰고 새롭게 만드는
적극적인 자원 순환의 의미를 경험하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게 됩니다.



목표 및 방향

- 1 쓰레기 분리 배출의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 2 **새로운 자원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자원의 선순환**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안다.
- 3 버려지는 물건의 탐색 과정을 통해 **새로운 쓰임새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안다.
- 4 모든 사물과 자원을 존중하며 아끼는 **친환경적 ' 생태적 태도를 형성**한다.
- 5 **지구를 지키는 주체적인 영웅**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지속적인 활동 보호 활동**에 책임감을 갖는다.



대상

학급명

밝은민음반

연령

만 5세

학급형태

단일연령

인원

남: 8명
여: 9명

송현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연계

1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AI 활용 교육

AI를 수업에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른다

탄소 중립 환경교육

자연과 어우러지는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와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킨다.

이음교육

연령과 기관에 따라
단절되지 않고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배움을
잇는 이음교육의 실천한다

2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유보 통합 시범 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기회 확대
(유치원에서 실천하는 디지털 시민 교육, AI 시대의 교육과 변화, 놀면서 배우는 맞춤형 놀이연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놀이중심 인성교육,
유보 통합 정책의 이해와 실체)
- 교사 정서 문화 지원을 통한 교사 간의 동아리 활동으로 교사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정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그룹 형성
- 나의 감정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다독이는 시간을 통해 회복 탄력성 향상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사전 환경 구성

4

푸드 업사이클링

업사이클을 식품에 적용한것을 푸드업사이클이라고하는데요!
푸드 업사이클이란 단순히 음식물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치와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입니다.

음식을 부산물을 새 식품으로 탈바꿈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같은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
귀리가루나 망고껍질로 만든 밀가루,
백주찌꺼기로 만든 쿠키 반죽 등

상품 가치 떨어진 식품에 브랜딩 더하기

크기가 작거나 구멍난 8급 과일과 채소들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
못난이 채소를 모아 만든 과일주, 피클 등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사회사업단



2

업사이클링 대표브랜드 "프라이탁"

20년 이상 된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라이탁'은
트럭 방수 덮개와 폐 튜브 등을
재활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이다.

재활용 **희소성**

프라이탁 디자인은 상품의 윤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사회사업단

3

이외의 브랜드

누깍

'우리 삶 속에서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재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방수천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과 지갑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한다.

(출처 : <http://mukak.kr>)

큐클리프

"소각 대신 소변, 두 번째 삶요"
라는 슬로건으로 버려지는 우산, 현수막,
건물 외벽 포스터 등을 이용해 지갑이나
팔뚝 등을 제작한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뤄진 귀한 제품이라는 점과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유일무이한 제품을 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이다.

(출처 : <https://cuclyp.com>)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사회사업단



이것은 쓰레기일까요? 보물일까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요!

우리가 버린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함께 찾아보고, 만들고, 지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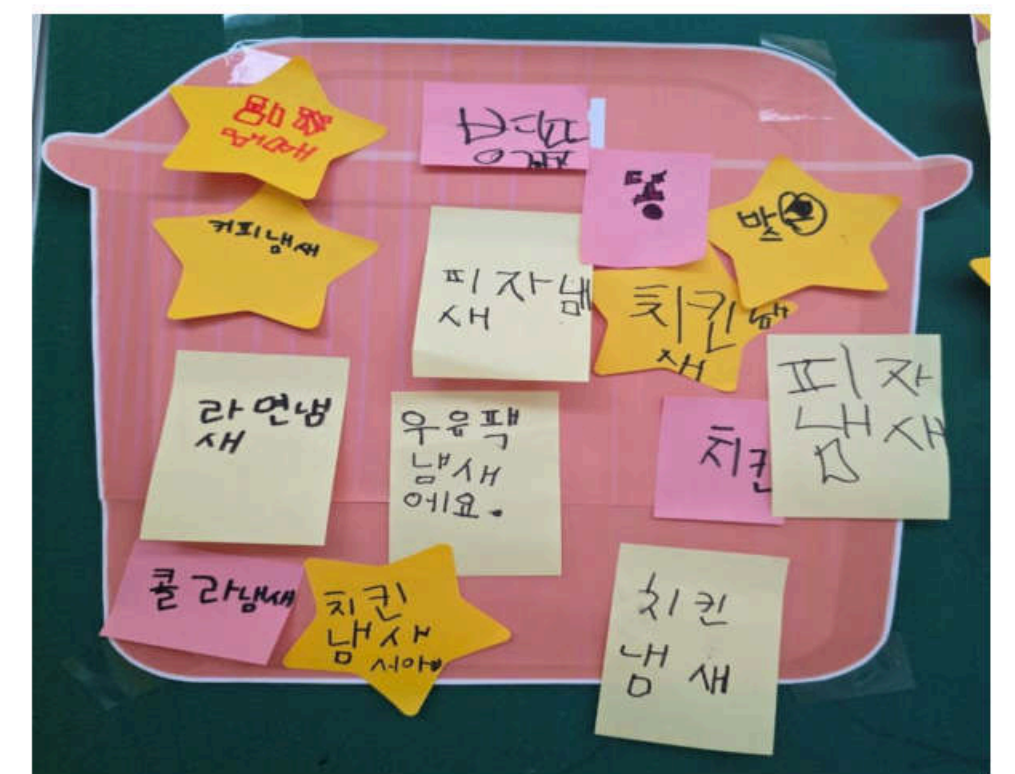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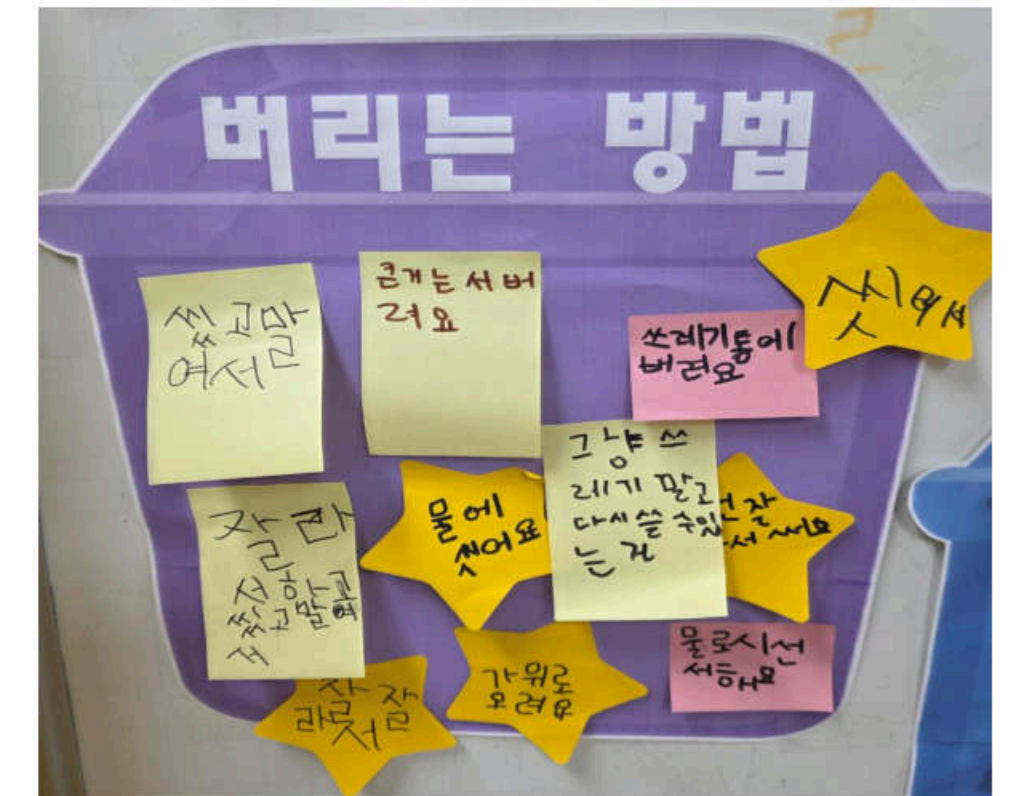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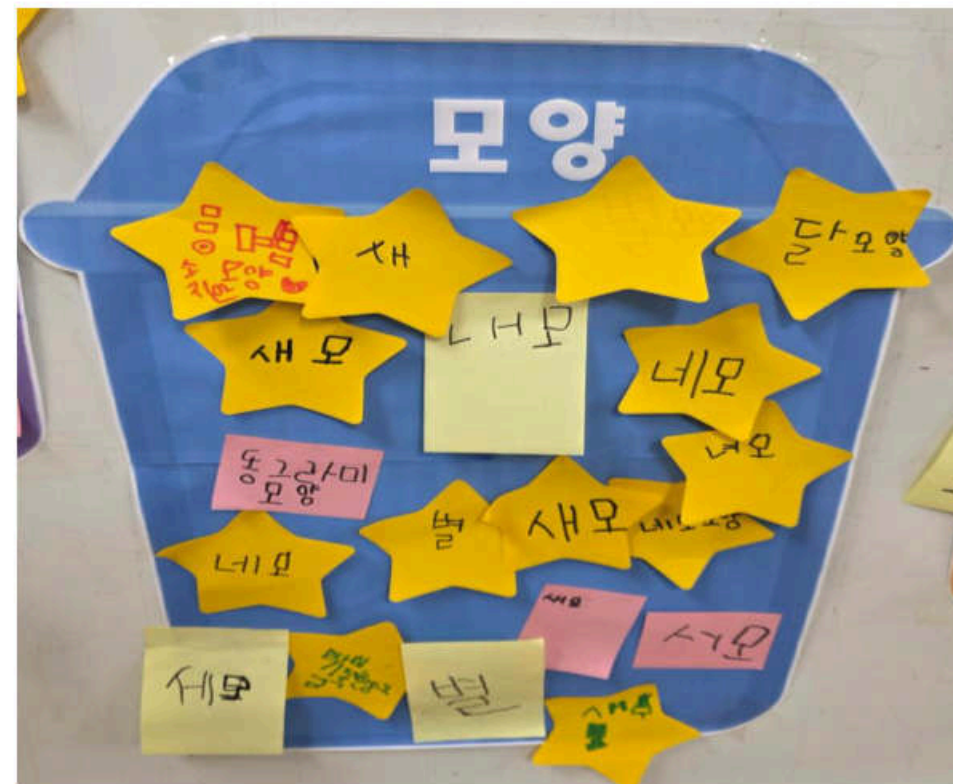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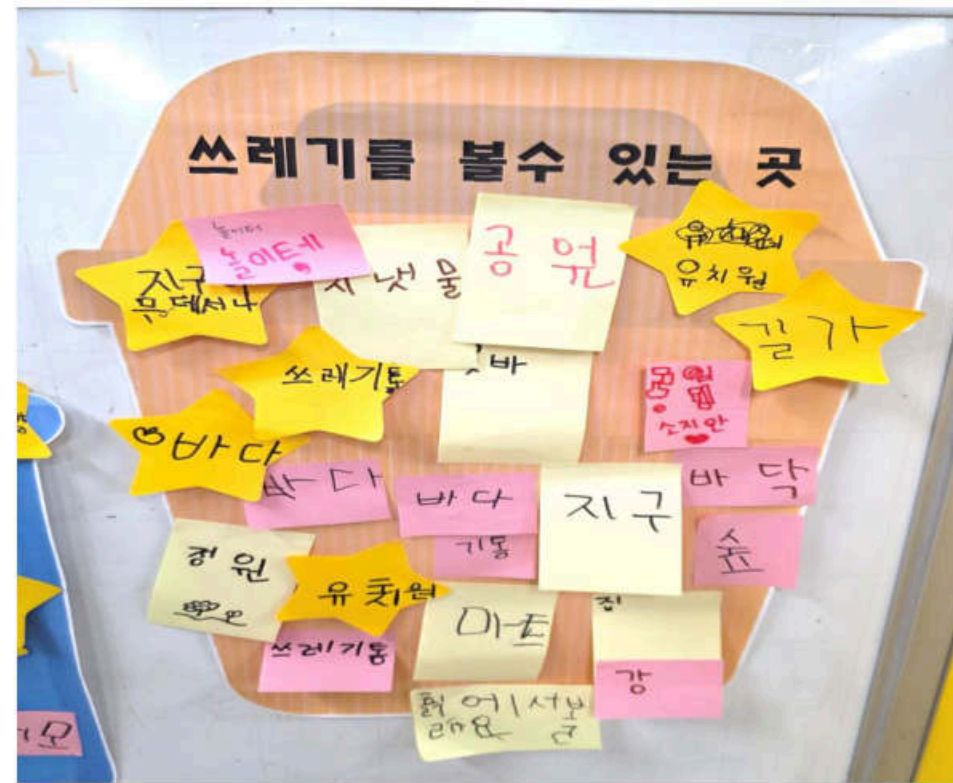
우리반 쓰레기통에
안내 문구 부착



“지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림책 읽기

업사이클링 사례와 제품 교실 벽면 게시

놀이활동: 생각모으기(유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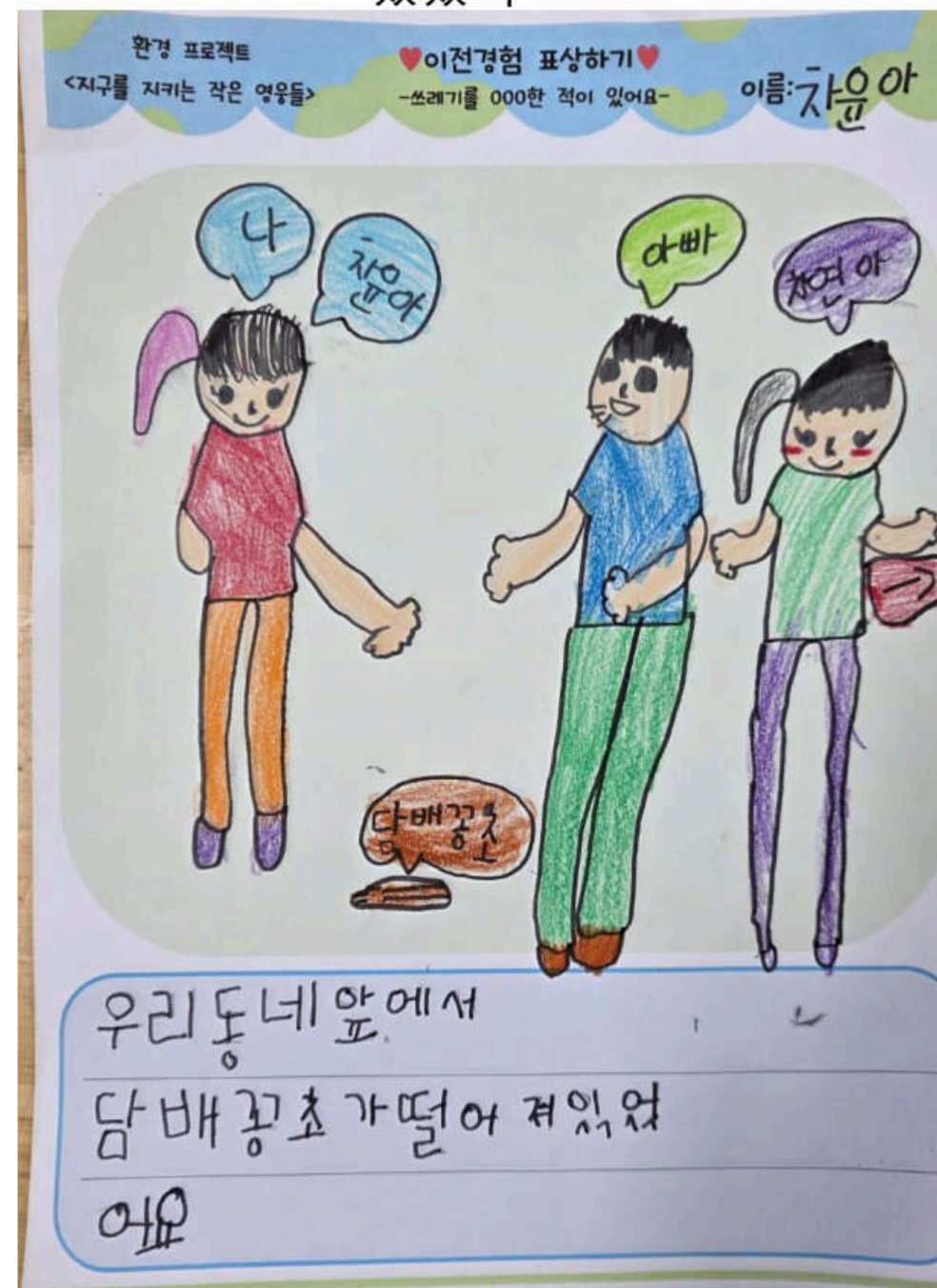
“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놀이활동: 이전 경험 나누기(쓰레기를 000한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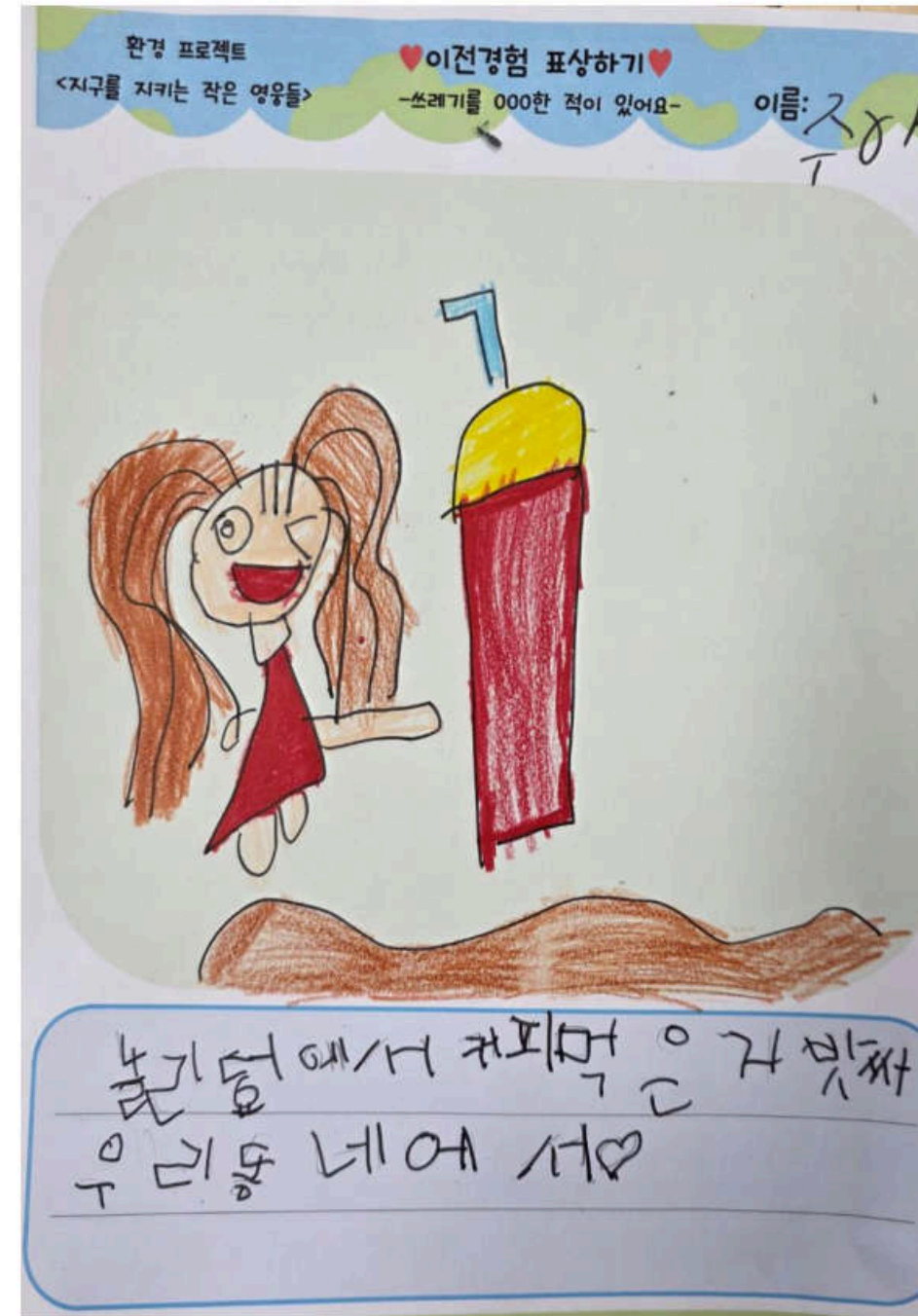
우리 동네 길 가다가 풀에 마이쥬
비닐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앞에 담배꽂초가 떨어져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커피먹은 컵을 보았어요



집에서 심부름하러 가는 길에
비닐봉지에
빨대가 끼워져 있었어요



모래놀이 하다가 쓰레기를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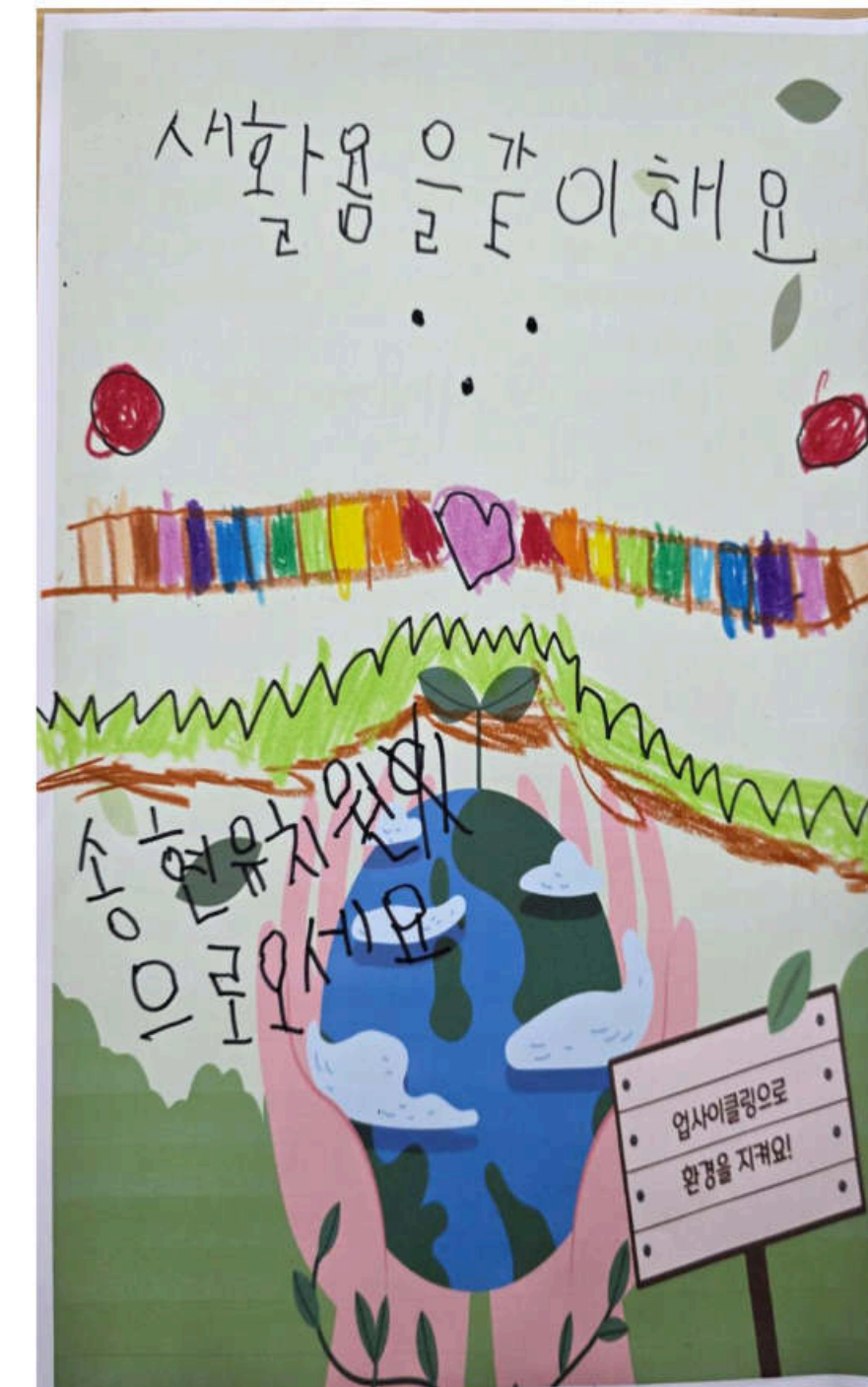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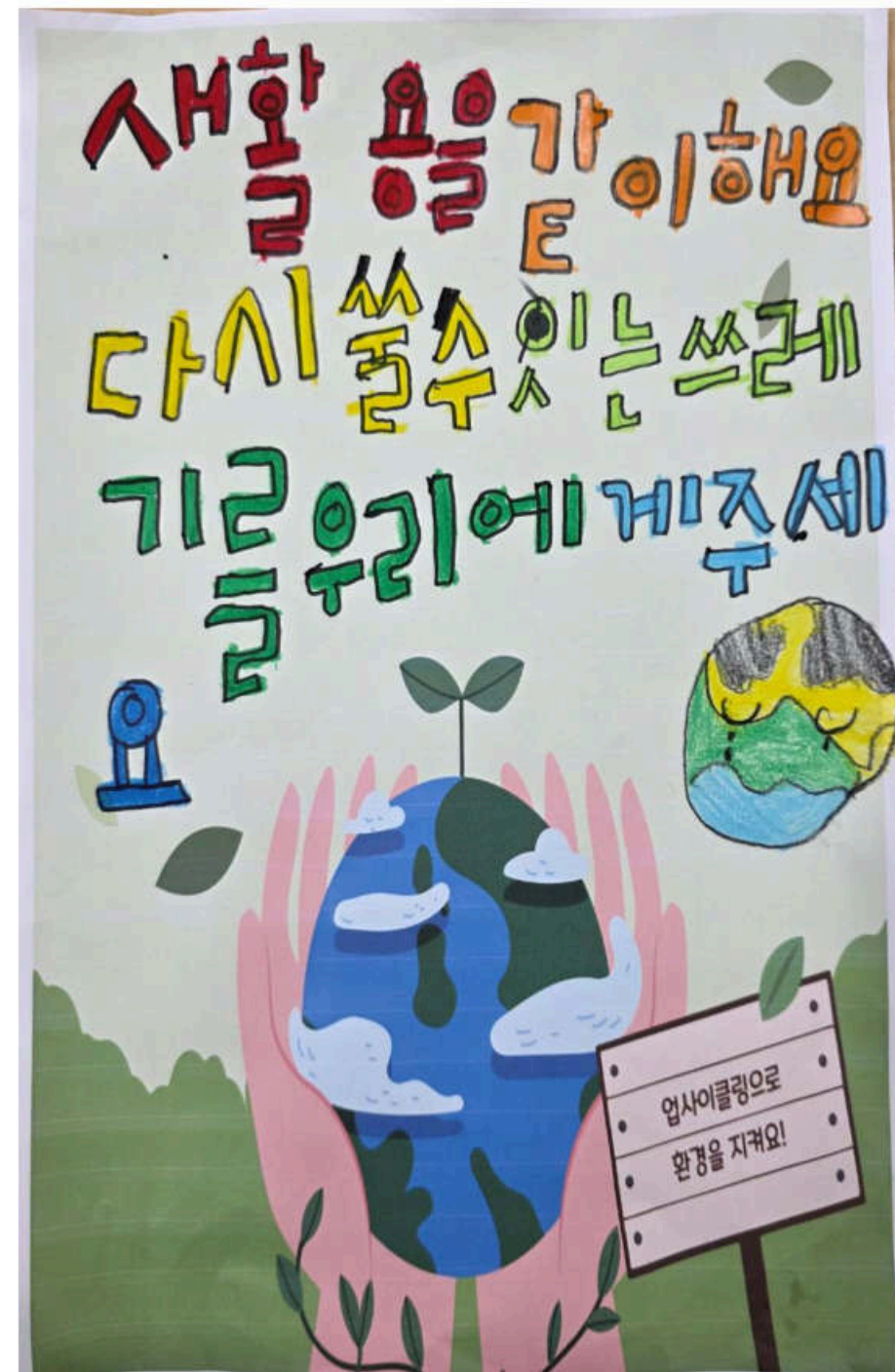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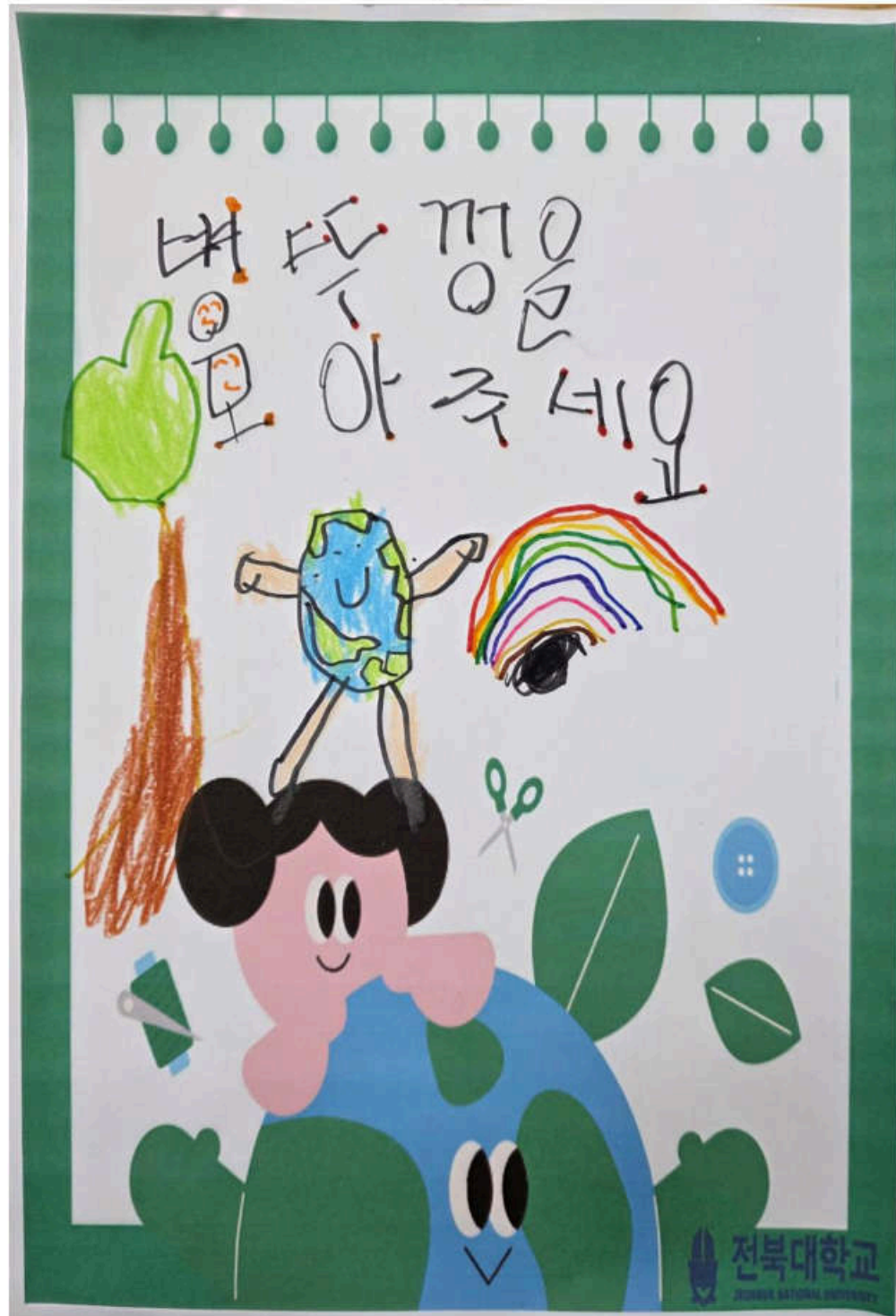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쓰레기에 대한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놀이활동: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쓰레기 탐험대



“우리 유치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고 탐색하며
버려지는 쓰레기 중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이활동: 재활용을 널리 알려요



“ 재활용의 의미를 알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함께 모으기 위해 직접 홍보포스터를 만들었어요 . ”